

요체는 '소셜'... 감성 소통 확장하라

SNS시대, 포교 전략은

불교의 인터넷 활용과 평가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미디어, 커뮤니티, 생활세계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사이버공간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수용되는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점은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라는 사실이었다. 이미 천문학적 양의 지식과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네티즌 스스로가 정보의 생산자이자 동시에 소비자인 프로슈머로서 자격을 획득했다.

이러한 추세는 불교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대학 및 공공도서관, 불교 관련 각종 포털 사이트, 불교계의 각종 단체나 사찰, 불자 개개인이 저마다 불교에 대한 정보들을 사이버공간에서 집적 및 유통시키고 있다. 고려대장경, 한글대장경, 한국불교전서, 대정신수대장경, 빨리대장경, 속장경 등 다양한 판본의 대장경들이 이미 전산화되어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음은 단적인 예이다.

또한 사이버공간은 그 자체로 새로운 포교 환경이 되고 있다. 실제로 사이버공간은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생활세계로 변모한 지 오래다. 물건을 사고팔고, 사람을 만나고, 직장 업무를 수행하고, 오락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되면서 사이버공간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 이것은 불교의 대중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이버공간이 종합적인 수행 공간으로 구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중단 없는 수행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이버예불과 사찰 참배를 가능하게 하는 사이버 기도도량인 108월드는 사공간의 제약 없이 예불을 할 수 있고, 자기만의 법당을 장엄할 수 있으며, 불자들과의 수행 공

동체를 꾸려나갈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108월드는 종합적인 수행 공간의 출발점이 되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종합적 수행 공간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균형성의 유지와 정보 접근성의 확보이다. 현재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는 종교 활동은 교리 학습과 공동체 활동의 비중이 높은 반면, 수행과 관련된 정보나 활동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사이버공간에서 수행과 관련된 종교활동이 교리나 공동체 부분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특별한 수행 공간으로서 위상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행 관련 콘텐츠의 기획과 생산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소셜 미디어와 포교

소셜 미디어는 "높은 접근성과 온라인상에서 확장 가능한 출판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만들어진 미디어"(위키피디아),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정보공유, 인맥관리, 자기표현 등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나 사이트"(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 정의된다. 사실 소셜 미디어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 유지, 확장시켜가는 소통의 도구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소셜 미디어 중 하나인 페이스북을 효과적인 포교매체로 활용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이메일처럼 가입하는 순간부터 그냥 쓸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카페처럼 메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



故 백남준 작 'TV 불타'

수행 콘텐츠 제작·개발 힘써야 SNS, 관계 빈도·강도에 초점 관계의 질 높이는 게 '포교'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페이스북을 이용해 만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서로 나누고, 불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이 페이스북을 통한 포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페이스북을 통해 효율적인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멀리 넓힐 수 있는가(관계의 범위),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소통할 수 있는가(관계의 빈도), 사람들과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될 수 있는가(관계의 강도)를 일차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관계의 빈도는 나와 친구를 맺은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소통하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포스팅(글쓰기)에 댓글이나 '좋아요'를 클릭하는 수동적인 소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친구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성실히 반응해주는 것이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내 생각도 수시로 올려서 친구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려면 그만큼 양질의 콘텐츠를 올려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관계의 강도는 일차적으로는 관계의 빈도와 연관성이 높다. 자주 관계를 맺을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서적으로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느냐이다. 정서적 공감대는 상대방에게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야만 형성된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양질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포교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무작정 부처님 말씀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교감하면서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법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포교의 효과가 나타난다.

소셜 미디어의 요체는 바로 '소셜(social)'에 있다. 끊임없이 관계를 확장하고, 관계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금도와 방법은 부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제시하셨다. 남은 것은 우리의 실천이다.

이 글은 박수호 덕성여대 겸임 교수가 <불교평론>2012년 가을호(통권 제52호)에 '소셜 미디어의 등장과 포교'를 주제로 발표한 논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박수호 덕성여대 사회학과 겸임교수

중단 차원 공모전 등 인재 발굴 필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현재 불교계에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선도하거나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인재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모든 불자가 마찬가지겠지만, 인재 발굴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사진)는 SNS를 통한 선결 과제로 인적 인프라 구축을 꼽으며 말문을 폈다. 같은 SNS라도 '신변잡기'식의 내용이 아닌



수 있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스님이 더 용이한 편입니다. 이제부터 스님들은 높은 수행력과 'IT 감수성'을 동시에

지녀야 합니다." 스마트폰 상에서 상용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인적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불교계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관리할 인력이 전무한 상태다. 반면, 개신교계는 신학대를 통해 다량의 관련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개발인력으로 사용된다. 실제 CTS TV의 경우 앱 솔루션을 제작해 무료로 교회 어플리케이션들을 보급하고 있다.

재정되는 수발사가 투자해야 'SNS 리더십' 가진 스님 배출

양질의 콘텐츠를 채워야 하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현재 SNS가 전문적 불교 수행으로 들어가기 위한 '게이트 웨이'라고 평가했다. 당장 포교로 연결되는 것보다는 불교에 대한 지지기반을 형성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이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서적 공감 이외에도 대중들을 이끌 수 있는 수행력을 갖춘 스님이 배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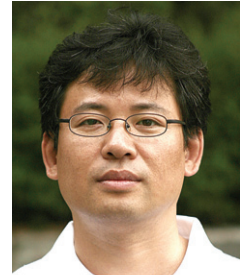
"현재 사이버 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SNS 리더십'을 가진 스님들을 배출해야 합니다. 물론 재가자에서도 있을

"불자연구가 고려되다보니 이 같은 포교 콘텐츠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면 개신교와의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적 인프라를 소화하기 위해 재정이 되는 분사, 수발사에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인력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중단 차원 공모전을 수시로 열고 젊은 층들의 다양한 창작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도 인재 양성에 중요한 수단입니다." 신종일 기자

"집단지성의 시대, 소통이 관건"

유권준 동국대 홍보팀장

"웹 2.0은 참여, 공유, 개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인터넷의 진화 단계로 플랫폼으로서의 웹을 의미합니다. 웹 2.0은 서비스제공자가 개발해 놓은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용자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단계이고, 사용자들끼리 네트워크를 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쓸만한 불교 어플리케이션과 콘텐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

요 중단과 기관들의 공적 투자를 통해 불교 어플리케이션과 콘텐츠를 개발해 공공재로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촉매로 하여 앱이나 콘텐츠 이용자를 형성하여 시장을 창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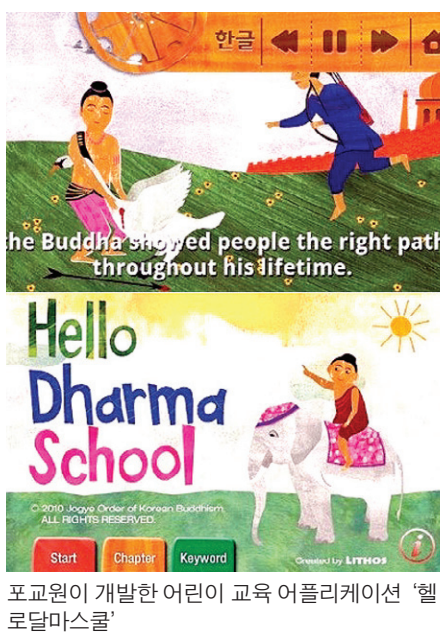
지식보다는 감성적 소통으로 불교 콘텐츠 내실을 채워야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계의 IT환경은 웹 2.0에 다르지 않고 있습니다. 형태는 있지만 그 안에는 콘텐츠가 제대로 채워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계 기자로 활동했던 유권준 동국대 홍보팀장은 불교계의 사이버 콘텐츠의 현황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무엇보다 불교계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소비할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IT업계는 불교 관련 어플리케이션과 콘텐츠 개발이 수익에 별로 도움이

요 중단과 기관들의 공적 투자를 통해 불교 어플리케이션과 콘텐츠를 개발해 공공재로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촉매로 하여 앱이나 콘텐츠 이용자를 형성하여 시장을 창출해야 합니다." SNS를 통한 포교에 대해서는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또는 중단 소식지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SNS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여기서는 법상 위에 올라 설법하는 형식의 포교와 수행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식보다는 실천적 지혜가, 이성보다는 감성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공감을 통해 집단지성을 형성하는 SNS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불자들 스스로 콘텐츠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신종일 기자



年 4개 이상 어플 개발... 파워 블로거 발굴

조계종 디지털 콘텐츠 개발 계획은

"감동과 화의의 포교를 하겠다." 조계종 제6대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취임 당시 발표한 슬로건이다. 당시 스님은 미디어 포교와 SNS를 통한 글로벌 포교를 주장했다.

현재 조계종 포교원은 SNS를 이용해 불자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간 4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불자파워블로거 발굴·지원 등을 추진해 새로운 불교트렌드를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한 젊은 층의 활용도가 높은 젊은 층의 활용도가 높은 SNS 기반을 개발 보급하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등 콘텐츠 개발에 나서 포교기반을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포교원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육바라밀'과 모든 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성불도 놀이', 마음일기를 쓸 수 있는 '어린 마음거울 108'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조계종포교원은 미디어포교 활성화를 위해 방송을 제작, 송출한다.

조계종포교원은 10월 9일 '포교원TV' 설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현대 HCN은 모바일 방송 채널인 에브리온TV에서 (가칭)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TV의 108번 채널을 보장한다.

또 포교원의 방송콘텐츠 제작에 대한 기술기능 협조 및 포교원 콘텐츠의 화질개선, 용량압축 등 콘텐츠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 포교원 행사에 대한 실시간 방송도 편성할 예정이다.

108인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선정
WORLD BUDDHISM LEADER

나라와 중단 어느 승가가 불문하고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 불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500인 선정 발기 협의회
1차 108인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선정
(중사, 대중사 급만 동참 가능)

법하께서도 추진위원회 발기인으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시시오

심사후 우선 세계불교와 한국 불교 승가 평화 차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출가 의식을 초발심의 행자로 돌아가 1주일간 중단불문, 법납, 속납까지 불문하여 남방불교의 중정 및 부종정 스님들의 지도하에 중정스님의 사찰에 입소하여 단기수행을 완료한 스님 중에 우선 108명의 원로 및 중진 비구를 모시게 됩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되어 보십시오.

한평생 부처님의 은덕으로 수행해온 큰스님들께서 앞당겨 후학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신다면 한국 불교사에 새로운 역사와 기운이 샘솟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만이 추대위원회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고승 및 중진 스님들께서 500인 추대위원회를 심사 위촉하게 됩니다

신청기간: 2012년 12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서 류: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접 수 처: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
출발일시: 2013년 2월 28일(음력 정월 19일) 6박 7일간 소승불교 체험 수련 정진 법납, 속납 일체 불문하고 대우 및 예우 일체 없음

미안마 연방 승가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 木鐸 慧恩
전화: 02-733-5665.5670 011-229-6061 팩스 733-5671

불교 승단 품수 의식 공고

귀의 삼보하옵고,
불교 정법 수호의 깊은 의지로 지탄과 격려를 받으며 회생할 각오로 소승 목탁 글월 드리리합니다.
한국 불교계에는 300여 중단이 있습니다. 중정스님 그리고 총무원장 스님 각 원장들 그분들의 명칭이 하나같이 대종사, 종사입니다. 아니 어찌보면 모두가 대종사요. 너도나도 대종사 종사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불교계에서는 거의 대부분 별 위식과 고시가 없이 종현 중법에 의거하여 품수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정리가 되고 조금은 걸려서 그래도 부처님 전에 부끄럽지는 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동안 중단을 불문하고 스님들께 미안마 연방 승가회 원로 및 부종정 스님들을 3중 칠사와 은 계사로 모시고 500여 스님들의 축하속에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에 따라 뜻뜻하고 자랑스런 구족계 의식을 봉행하여 왔습니다. 생각외로 좋은 반응을 받고 있기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미안마 연방 승가회와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에서는 2013년 2월 28일 ~ 3월 7일에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 속에 봉행되는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좋은 인연을 맺어 부처님의 가피 속에 정진하는 출가승으로 다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大僧正 목탁 혜은 합장

국제 포교사 자격 고시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이사

구족계 자격자
1. 구족계 자격: 한국의 모든 중단 소속 비구 스님
2. 법납이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출가승에 한함
3. 30명 한정 선착순 접수

중사 대중사 품수식
1. 법납 25년 이상: 중사 2. 법납 30년 이상: 대중사
※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 2차: 심의위원회
최종심사스님들께 품수 인증서 및 새 세계 불교 지도자들이 수여하는 국제 불교 지도자 포교 공로 훈장 수여

구족계 수계자 전원 부종정 스님 사찰에 입소 수행 결사(위빠사나, 발우공양 예불의식) 체험 후 구족계 봉행 남방불교 전통의 불명 수여

일시: 2013년 2월 28일~3월 7일까지 (1주일간) 봉행 행사 이후 한국에서 재 추대행사 계획

2013년 4월 16일 롯데호텔 사파이어룸 의식 봉행 및 연예인 축하 공연

전화: 02-733-5665.5670 011-229-6061 팩스 733-5671